

야채- 과일, 충분히 씻어 드세요!

식약청, 잔류농약 검출 빈번 ...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의 185배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신선 채소류에서 지속적으로 과다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시·도와 함께 채소와 과일 등 1만8785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인 253건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산물 1만818kg을 폐기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깻잎이 검사대상 1897건 중 47건(부적합률 2.5%)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가 2189건 중 25건(1.1%), 시금치가 1134건 중 22건(1.9%), 쑥갓이 963건 중 22건(2.3%)이었다.

또 열무 728건 중 12건(1.6%), 취나물 141건 중 12건(8.5%), 부추 318건 중 11건(3.5%), 샐러리 100건 중 9건(9%) 등이 각각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일부 상추에서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 0.01ppm의 185배나 검출됐으며, 겨자에서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의 338배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 깻잎에서 살충제 에토프로포스가 기준치(0.02ppm)의 70배 가량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은 농약을 뿌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농산물을 출하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는 것 같으며, 야채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을 대부분 없앨 수 있는 만큼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한 다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Chemical Journal 2003/ 02/ 18 >